

유아영재교육의 현황과 방향

Current practice and future direction of gifted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인천대학교 한 기 순

1. 서론

현행의 영재교육은 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학생 가운데 영재성이 나타난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영재성이 그 단계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그 단계부터 또한 시작되는 것도 아님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만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영재교육의 포괄성, 적기성 및 효과성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Kusnettova(1994)의 연구에 의하면 98% 이상의 아이들이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 재능을 타고난 것으로 보이지만 7살이 되면 37%, 8살이 되면 17% 등으로 연령이 더해감에 따라 창의적 재능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많은 전문가들이 유아기 및 초등 저학년 영재 교육의 중요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시기 영재 및 영재교육에 관한 사실적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유치원 및 일반적 유아 교육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들은 유아들의 보편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영재아의 특성을 감안한 교육 과정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다.

영재라고 해서 교육의 도움 없이 뛰어난 성취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교육의 도움으로 그들이 가진 잠재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다면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교육 잠재력이 가장 풍부하다는 유아기를 지나칠 수 없다(유아교육분야에서 유아는 0-8세 즉, 생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교육학자와 교육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인간형성 과정에 있어서 인생 초기의 경험에 교육적 의의를 중시하고 있다. 이는 영재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유아영재는 국가의 귀중한 인적자원이다. 미래 경쟁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우리는 모든 유아에게 그에 적합한 교육을 진단하고 계획하며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유아 영재를 위한 영재아 교육에 관심과 지지를 기울여야 한다. 저명한 신경심리학자 Diamond와 Hopson (1998)은 뇌 성장의 가장 급속한 시점은 만 2세 전후, 만 4세 전후, 만 6세 전후 로 대부분의 주요 뇌 성장이 만 6세 이전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만 2-5세 사이에 유아가 풍부한 지적 자극을 제공받지 못하면 대뇌피질의 두께가 얇아진다고 지적하면서 인간

내 성장 측면에서 영재의 진단 및 교육 프로그램의 적기가 유아기임을 강조한 바 있다.

Hunt와 Bloom의 연구에 의하면 환경적 변화가 아동 초기 발달의 급속한 변화 시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한다. 환경적 조작의 가장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영재 교육은 유아시기에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Gogul, MeCamsey, Hewett(1985)의 연구 역시 1039명의 영재아 대상 중 13%만이 만6세 이후에 발견되었음을 보고하면서 유아기 시절 영재교육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순실, 김복순, 한석실(1995)은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 4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녀의 영재성 발견시기로 만3세 이전이 74% 그리고 만6세 이후는 단지 1%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유아는 영재교육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2000년 1월 28일에 제정된 영재교육진흥법에도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하게 함”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유아영재교육은 여전히 영재교육법과 그 시행령 어디에도 언급되고 있지 않으며 2004년 발표된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에서도 유아영재에 대한 실질적인 언급은 없다. 실질적으로 유아영재는 영재교육의 진흥대상에서도 완전히 배제된 상태이다. 유아기 영재교육에 대한 우리의 국가적 인식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특정한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유아들이 조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여 그 재능이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우리 헌법 제 31조에서는 국민의 교육기본권, 즉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가적 차원에서 명시하고 있고 전문가 집단 (e.g., 박성익 외, 2003; 이영석, 2004) 역시 유아영재교육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유아영재교육은 아직까지 공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전혀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의 목적은 국가적으로는 인재양성, 개인적으로는 인간이 타고난 능력과 소질을 계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고 그 성취를 사회와 공유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교육의 국가적, 개인적 목적을 모두 달성하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자연자원이 부족한 실정에서는 영재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의 잠재력이 가장 큰 유아 영재집단을 외면하는 것은 개인적,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The earlier, the better; the longer, the better”의 유아교육의 슬로건은 교육이 적기성, 기초성, 누적성, 불가역성의 기제에 성실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No child left behind”라는 미국의 강력한 교육정책에서도 나타나듯이 유아영재교육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저런 이유로 교육제도권 범위 밖에서 서자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영석, 2004).

유아영재는 이제 막 그 관심과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으나 유아기야 말로 영재아 그리고 영재교육의 보고라고 불리울 만큼 무한한 가능성을 안고 있다. 유아기는 재능 발달의 민감기(Sensitive Period)이기 때문에 유아들의 재능 발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어린 시기의 영재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그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조기에 탁월한 선천적 재능을 타고난 영재들을 선발함은 물론 적절한 교육적 중재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다. 올바른 영재교육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그리고 영재관별 및 교육에서의 포괄성, 연계성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유아영재들을 위한 교육은 반드시 국가 영재교육 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구상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영재교육의 효과적인 구현방안을 전문가들의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조명해보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유아 및 초등저학년을 위한 영재교육의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유아영재를 효과적으로 진단, 관별하며 이들을 위해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 및 운영 체제에 관한 논의는 작금의 영재교육의 현실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된다.

2.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델파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델파이 방법은 예측하려는 문제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견해를 유도하고 종합하여 집단적 판단으로 정리하는 일련의 절차이다. 이 방법은 추정하려는 문제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을 때는 “두 사람의 의견이 한 사람의 의견보다 정확하다”는 계량적 객관의 원리와 “다수의 판단이 소수의 판단보다 정확하다”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에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다.

협의회와 같이 얼굴을 맞대고 토의하는 과정에서는 소수 의견의 무시, 권위자의 발언의 영향력, 사전 조율에 의한 집단 역학의 약점, 한 번 취한 입장의 고수 등 심리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효과가 작용할 수 있는데, 델파이 방법은 이러한 효과를 제거하면서 토론자 사이에 의사소통 과정을 구조화한다. 델파이 방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소통 과정의 구조화는 1) 절차의 반복과 통제된 피드백, 2) 응답자의 익명, 3)통계적 집단 반응분석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델파이 방법은 일반적 여론조사 방법과 협의회와 장점을 결합한 방법이다. 미래에 대한 예측, 이해집단의 갈등관계 추정, 다수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중재 등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1) 분석 대상 및 자료수집

전국의 대학, 영재연구소 및 유아영재교육실시 기관 등에 종사하는 13명의 영재교육전문가들이 본 델파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10명 영재전공 관련 대학교수, 2명 영재

교육연구소 전문연구원, 1명 유아영재교육기관장). 이들은 영재교육 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유아영재교육과 관련하여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다. 물론 통계적인 유의도의 측면에서는 더 많은 전문가를 동원하는 것이 예측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바람직할 수 있으나 주제의 특성상 단순히 다수의 의견만이 옳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연구의 대상을 13명으로 하였다. 2차에 걸쳐서 실시한 본 델파이 조사는 1차에서는 (2005년 3월 실시) 유아 및 초등저학년 대상 영재교육 (이하 유아영재교육) 실시 전반에 관하여 전문가들이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1차 전문가 응답을 토대로 작성된 2차 설문에서는 (2005년 4월 실시) 제기된 주요 관건들에 대한 각 전문가별 의견 일치도를 파악해 효율적 유아 영재교육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차 조사는 유아 영재교육 관련 핵심 사항들을 크게 9가지로 분류해 세부 항목들을 만들고 그 항목에 대한 동의도를 6점 척도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조사에서 핵심 사항으로 삼았던 9가지 영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유아 영재교육 실시에 관한 타당성 및 부당함
- 유아 영재교육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
- 유아 영재교육 실시 시기
- 유아 영재교육 대상 학생 선발 방식
- 유아 영재를 위한 교육 내용과 수업 방식
- 유아 영재교육의 교육 영역
- 유아 영재교육 운영 방식
- 유아 영재교육이 실시될 경우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유아 영재교육의 시행 및 운영과 관련한 의견 및 논의 사항

3. 연구 결과

2차 조사 결과의 수합은 각 전문가별 6점 평정 척도에 대한 평균을 내고 표준 편차를 내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세부 항목별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유아 영재교육 실시에 관한 타당성 및 부당함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2차 델파이 설문이 작성되었다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유아 영재교육의 부당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의견들이 유아 영재교육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다. 유아 영재교육 실시와 관련한 필요성과 부당함에 대한 전문가들의 2차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에 나타나듯이 전문가들은 유아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높은 수

준의 동의를 보이고 있다. 설문에 나타난 내용 중 동의도가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교육자의 역할은 학생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가 평균 6.0으로 모든 전문가들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동의를 나타내었으며, 다음으로 “유아 영재교육의 실시로 타고난 재능이 지속적으로 신장될 수 있다”; “유아 영재교육의 실시로 타고난 재능이 지속적으로 신장될 수 있다”; “어린 시절 재능 영역의 풍부한 환경적 자극은 미래의 업적 산출에 필수적이다”; “개인적 차원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도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해야 한다” 등이 평균 5.67로 유아 영재교육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높은 동의수준을 이끌어내었다. “영재성은 대체로 유아기부터 나타난다” (M=4.33) 만 제외하고는 유아 영재교육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모든 항목이 평균 5.0 이상의 높은 동의도로 미루어 볼 때 유아 영재교육 실시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미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필요성을 매우 절감하면서도 구체적 시행에 관한 적지 않은 논란을 예상하고 유아 영재교육과 관련 여러 제반 사항을 우려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유아 영재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나 부당함으로 지적된 문항은 “부모의 지나친 개입과 과열 양상이 예상 된다”로 평균 5.5의 높은 동의를 나타내고 있다. 이밖에 “유아 영재교육 시스템의 부재로 검증되지 못한 사교육 시장이 팽창하고 있으며 부작용이 우려된다”와 “유아 영재의 경우 대상의 범위, 판별의 어려움, 교육 목표, 내용 선정에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평균 5.33으로 전문가들간 유아 영재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정리하면, 유아 영재교육의 필요성은 (M=5.31) 그 부당함이나 발생 예상되는 문제점에(M=4.95) 비해 전문가들간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동의를 나타냈다. 또한 기타의견 제시를 통하여 전문가들은 유아 영재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위에 제시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이유들이 유아 영재교육의 실시를 지연하거나 막는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예상가능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비하여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유아 영재교육 시행의 찬반 여부가 아니라, 향후 유아 영재교육에 대한 연구의 미비, 과열 양상, 판별의 어려움, 사교육의 팽창 등 유아 영재교육 실시에 따를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의 도출을 위해 단계적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병행해 가며 조심스럽게 시행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표 1 > 유아 영재 교육 실시에 관한 타당성 및 부당함

설 문 내 용	동의를 정도 적극 반대(1) - 매우 동의(6)	
	평균	표준편차
유아 영재교육의 실시로 타고난 재능이 지속적으로 신장될 수 있다.	5.67	0.52
영재아의 특성에 맞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5.67	0.52
창의성 교육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3-7세에 영재성을 발굴하고 교육해야 한다.	5.00	0.63
뇌의 성장을 위해 유아 영재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5.17	0.98
영재성은 대체로 유아기부터 나타난다.	4.33	0.52
교육자의 역할은 학생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6.00	0
어린 시절 재능 영역의 풍부한 환경적 자극은 미래의 업적 산출에 필수적이다.	5.67	0.52
영재교육의 성패는 조기성에 크게 좌우된다.	5.00	0.63
지능, 학습 습관, 사고양식 등이 어려서 결정되기 때문에 유아 영재교육은 필요하다.	5.17	0.75
영재성이 발현되는 시기에 적절한 교육활동이 제공되지 않으면 영재성이 사장될 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5.17	0.75
고학년이 될수록 입시에 얽매게 되는 교육 현실에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올바른 영재교육을 할 수 있는 시기를 활용해야 한다.	5.17	0.75
개인적 차원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도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해야 한다.	5.67	0.52
유아 영재교육의 타당성 (전체)	5.31	
유아 영재교육 시스템의 부재로 검증되지 못한 사교육 시장이 팽창하고 있으며 부작용이 우려된다.	5.33	0.82
유아 영재의 경우 대상의 범위, 판별의 어려움, 교육 목표, 내용 선정에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5.33	0.52
불필요한 경쟁심, 사교육의 팽창이 심화될 것이다.	5.00	0.63
유아 영재교육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가 없는 상황이다.	5.17	0.75
부모의 지나친 개입과 과열 양상이 예상된다.	5.50	0.84
한 영역의 발달에만 치우쳐 고른 발달의 기회를 막을 우려도 있다.	3.83	0.75
본 취지와는 다른 영재교육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4.50	0.55
유아 영재교육의 부당함 (전체)	4.95	

2) 유아 영재 교육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

‘유아 영재교육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 관련 세부 항목들에 대한 동의도를 조사한 결과 전문가들은 유아 영재교육의 부재로 다양한 문제들이 현존하고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표 2 참조).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유아 영재교육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 중 높은 동의수준을 이끌어낸 항목들은 “적절한 환경적 자극의 부재로 영재성이 사장될 수 있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한 인적 자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검증되지 않은 유아 영재 프로그램이 난무한다” 등 (M=5.33)이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농촌지역, 바쁜 부모를 둔 아동의 경우 재능을 제대로 발휘할 환경을 제공받지 못한다” (M=5.5)의 경우도 공교육상에서 유아 영재교육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밖에도 전문가들은 ‘공교육 차원에서의 유아 영재교육의 부재에서 기인한 잘못된 영재교육으로 인한 부작용’ ‘영재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교육 효과의 저하’, ‘학부모의 불안’ 등 다양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들은 영재 개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교육·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예견되는 여러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의 연구들이 매우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표 2 > 유아 영재 교육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

설 문 내 용	동의의 정도 적극 반대(1) - 매우 동의(6)	
	평 균	표준편차
적절한 환경적 자극의 부재로 영재성이 사장될 수 있다.	5.33	0.82
영재아의 올바른 정서 발달을 저해한다.	4.33	0.52
잘못된 영재교육으로 인한 휴유증이 크다.	4.67	0.52
영재아를 둔 학부모의 불안감과 책임감이 가중된다.	4.67	0.52
저소득층, 농촌지역, 바쁜 부모를 둔 아동의 경우 재능을 제대로 발휘할 환경을 제공받지 못한다.	5.50	0.84
일반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 영재의 반사회적 경향이나 행위가 우려된다.	4.33	0.82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한 인적 자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5.33	0.82
검증되지 않은 유아 영재 프로그램이 난무한다.	5.33	0.52
무자격 사설 교육기관이 난립하고 있다.	5.17	0.41
개인의 능력에 맞는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취지와 다르다.	4.33	1.63
유아 영재성에 대한 합의된 인식이 부재하고 오해가 많다.	5.00	0.63
사설 영재교육기관의 부적절한 운영으로 영재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다.	4.83	0.41
교육적 잠재력이 가장 큰 유아기를 배제함으로써 영재교육의 효과성이 감소된다.	5.00	0.63
사교육비가 증가된다.	4.33	1.03
체계적인 영재 교육이 어렵다.	4.50	0.55

3) 유아 영재교육 실시 시기

영재교육은 과연 언제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조사 결과 ‘유아 영재 교육 실시 시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은 “가급적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에 평균 5.0으로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었으며, <표 3>이 지적하듯이 구체 연령상으로는 전문가들 간에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으나 “영재 판별 과정에 반응할 수 있는 만 4-5세 사이에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에 평균 4.67로 가장 높은 동의를 나타냈다. 이렇듯 전문가들은 유아 영재교육을 학령 전 유치원 시기에 이미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현행과 같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것에는 영재교육의 적기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모든 전문가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다.

< 표 3 > 유아 영재교육 실시 시기

설 문 내 용	동의를 정도 적극 반대(1) - 매우 동의(6)	
	평 균	표준편차
잠재성 개발을 위해 가급적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5.0	0.63
언어소통이 가능해지는 만 2세부터 영재성이 나타나는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	3.67	0.52
만 4세 이상부터 대상자로 하되 영재성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	4.17	0.75
영재판별 과정에 반응할 수 있는 만4-5세 사이에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	4.67	0.52
전 세계적으로 정규 교육이 시작되는 만 5세경이 적절하다.	3.83	0.75
우리나라 공교육이 시작되는 초등 1학년(만 6세경) 정도가 적절하다.	3.17	1.17
공교육 차원의 영재교육은 교과외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부모의 도움 없이 교육기관 이동이 가능한 초등 4학년 정도가 적당하다.	1.83	0.75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교육해야 하므로 영재교육의 시기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5	1.64

4) 유아 영재교육 대상 학생 선발 방식

< 표 4 > 유아 영재교육 대상 학생 선발 방식

설 문 내 용	동의의 정도 적극 반대(1) - 매우 동의(6)	
	평 균	표준편차
가시적 영재성을 보이는 소수 아동을 대상으로 영재성 검증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4.33	0.82
유아의 경우 가시적 영재성을 보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다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영재성을 판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80	0.84
특출한 능력을 가진 소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면접, 전문적인 테스트, 활동 모습 관찰 등을 적용해야 한다.	4.83	0.75
간단한 절차로 1차 판별하고 영재프로그램을 경험하도록 한 후 프로그램에서의 관찰 결과로 잔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좋다.	5.33	0.52
구체적인 진행방식이나 단계 보다 영재성이 나타나면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판정하는 것이 좋다.	4.17	0.98
유아 영재성 판별을 위한 검사 도구를 따로 개발하여 적용해야 한다.	5.00	0.63
학부모의 관찰과 아동 상담의 절차로 판별한다.	4.17	1.17
부모 상담 및 부모용 체크리스트 실시 후 창의성 검사와 지적능력 검사를 통하여 판별한다.	4.67	0.52
추천, 관찰 등의 간단한 절차로 선발하고 중장기적 교육을 통해 영재성을 판별한다.	5.00	0.630
교사추천, 학부모의 행동관찰 및 성장과정 보고서, 표준화 검사, 영재프로그램의 시범 실시 결과 등의 여러 자료를 수집하여 선발한다.	5.00	0
추천 후 여러 차례의 수행평가와 관찰 결과로 선발한다.	4.50	0.55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선발 방식은 달라지므로 각 기관에 전담한다.	4.33	0.82

‘유아 영재교육 대상 학생 선발 방식’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양분된 의견을 보였다. 첫 번째는 가시적 영재성을 보이는 일부 유아만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또 다른 입장은 잠재적 가능성을 보이는 많은 유아를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유아 영재교육의 대상자 선정에 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 의견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경우 가시적 영재성을 보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다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영재성을 판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더 우세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시적 영재성을 보이는 소수 아동을 대상으로 영재성 검증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의 의견이 평균 4.33의 동의수준을 나타냈으며 “유아의 경우 가시적 영재성을 보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다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영재성을 판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의 의견은 평균 4.8의 동의수준을 보였다 <표 4 참조>.

한편 판별 절차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 되었으나 “간단한 절차로 1차 판별 후 프로그램을 경험하도록 한 후 프로그램 관찰 결과로 잔류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의 항목에 평균 5.33으로 가장 많은 동의를 나타냈다. 또한 “유아 영재를 위한 검사 도구를 따로 개발하여 적용해야 한다”에 5.0 의 높은 동의를 보였으며 유아의 경우 “교사 추천, 학부모의 행동 관찰 및 성장 과정 보고서, 표준화 검사, 영재 프로그램의 시범 실시 결과 등의 여러 자료를 수집하여 선발해야 한다”에도 5.0의 높은 동의를 표했다.

이는 유아기 영재들의 경우 연령이 어려 판별 과정에서 객관적 검사 결과를 얻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형식적 검사 단계를 대폭 줄이고 간단한 절차로 1차 판별 후 구체적 프로그램 참여 결과를 관찰해 판별에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데서 기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기타 결과를 수합해 볼 때 유아 영재교육의 대상 선정과 선발 방식은 기존의 초등 4학년 이상의 영재아 선발 방식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아기 영재의 특성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그 특성을 잘 반영한 선발 방식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5) 유아 영재의 교육내용과 수업방식

< 표 5 > 유아 영재의 교육내용과 수

5) 유아 영재의 교육내용과 수업방식

< 표 5 > 유아 영재의 교육내용과 수업방식

설 문 내 용	동의의 정도 적극 반대(1) - 매우 동의(6)	
	평균	표준편차
유아의 교육내용		
영재 각자의 다양한 관심사를 위주로 한다	4.83	0.41
창의성, 사고력, 문제해결력 등의 학습을 위주로 한다	4.83	0.75
재능을 보이는 영역의 학습을 위주로 한다	4.00	0.89
정서 및 인성 발달 관련 내용을 위주로 한다	3.50	1.05
초등 저학년의 교육내용		
영재 각자의 다양한 관심사를 위주로 한다	4.67	0.52
창의성, 사고력, 문제해결력 등의 학습을 위주로 한다	4.67	1.03
재능을 보이는 영역의 학습을 위주로 한다	4.33	0.82
정서 및 인성 발달 관련 내용을 위주로 한다	3.33	1.21
유아의 수업 방식		
놀이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 방식	4.83	0.75
프로젝트 학습 방식	4.83	0.75
아동 중심의 소집단 활동 방식	5.00	0
과정 중심의 활동 수업 방식	4.83	0.41
창의적 산출물이 가능한 수업	5.17	0.41
도구 및 교구를 활용하는 수업 방식	4.50	0.55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사이버 교육	3.67	0.52
재능영역의 전문가와 사사교육 방식으로 진행	4.00	1.09
초등 저학년의 수업방식		
아동의 학습 스타일을 고려한 수업 방식	5.00	0
독서교육 및 체험학습 중심	4.33	0.82
소집단 중심의 자기 주도적 수업 방식	4.83	0.41
특별활동 형식	4.00	0.63
과정 중심의 활동 수업 방식	5.00	0
창의적 산출물이 가능한 수업	5.17	0.41
도구 및 교구를 활용하는 수업 방식	4.33	0.82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사이버 교육	4.00	0.63
재능영역의 전문가와 사사교육 방식으로 진행	4.50	0.84

1차 설문을 통하여 전문가들은 유아와 초등 저학년 영재아동들을 위한 교육내용으로 영재 각자의 다양한 관심사를 위주로 한 수업, 창의성, 사고력,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내용, 재능을 보이는 영역의 학습, 그리고 정서 및 인성 발달과 관련한 내용들을 주요 학습내용으로 제시하였다. ‘유아 영재를 위한 교육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2차 설문결과 의견을 수합한 결과 “영재 각자의 다양한 관심사를 위주로 한다”와 “창의성, 사고력, 문제 해결력 등의 학습을 위주로 한다”에 각각 4.83으로 가장 많은 동의를 보였다<표 5 참조>.

한편 ‘초등 저학년 영재아 대상의 교육 내용’도 유사하게 “영재 각자의 다양한 관심사를 위주로 한다”와 “창의성, 사고력, 문제 해결력 등의 학습을 위주로 한다”에 역시 높은 지지를 보였으나 그 비중은 유아기에 비해 조금 감소한 평균 4.67이었으며 “재능을 보이는 영역의 학습을 위주로 한다”에 4.33으로 다소 증가된 비중을 나타냈다. 이는 수업 내용 면에서 연령이 점점 높아가며 ‘다양한 관심사’ 위주의 내용 보다는 좀 더 전문성있게 ‘재능을 보이는 영역의 학습’으로의 비중을 높이 둔다는 측면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유아나 초등저학년 영재아동들을 위한 수업의 내용은 영재아 각자의 다양한 관심사를 위주로 하는 내용과 창의성, 사고력, 문제 해결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내용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겠으나 이와 함께 아동 각자의 재능 영역에 대한 학습과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도 소홀히 다루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수업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1차 설문을 통하여 놀이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 방식, 프로젝트 학습 방식, 아동 중심의 소집단 활동 방식, 과정 중심의 활동 수업 방식, 창의적 산출물이 가능한 수업, 도구 및 교구를 활용하는 수업 방식, 학생과 학부모와 함께 하는 사이버 교육, 재능영역의 전문가와 사사교육 방식으로 진행 등이 유아 및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적합한 수업 방식으로 제시되었고,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는 이밖에도 독서교육 및 체험학습 중심의 수업과 특별활동 형식의 수업 등이 추가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응답들 중에서 전문가들은 2차 설문을 통하여 유아들에게 적합한 수업방식으로 ‘창의적 산출물이 가능한 수업’에 5.17, ‘아동 중심의 소집단 활동 방식’에 5.0, ‘놀이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 방식’과 ‘프로젝트 학습’방식에 각각 4.83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였으나 제시된 다양한 수업방식들이 상호보완적인 맥락에서 이해되고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기타의견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초등 저학년 영재들 대상의 수업 방식은 ‘창의적 산출물이 가능한 수업 방식’에 5.17, ‘아동의 학습 스타일을 고려한 수업 방식’과 ‘과정 중심의 활동 수업 방식’ 등에 각각 5.0으로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다. 유아기 영재들과 달리 초등 저학년 시기 영재들에게는 놀이 보다는 아동의 학습 스타일이나 과정 중심의 활동 수업 방식이 더 권장되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유아 및 초등 저학년 대상 영재 교육 수업 방식은 무엇보다도 창의적 산출물이 가능한 수업 방식일 것과 아동 중심의 소집단 활동 방식이 되 아동의 개별성을 인정한 과정 중심의 활동 수업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

견을 모을 수 있다. 더불어 유아기와 초등 저학년 시기는 연령별 발달 특성이 다른 점을 감안해 이들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융통성 있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6) 유아 영재 교육의 교육 영역

<표 6>에서 나타나듯이 ‘유아 영재 교육의 교육 영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문가들은 유아기의 경우 “예체능 영역”이 5.17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수학, 수리 프로그램” 및 “과학 탐구 프로그램”이 각각 4.67, “언어, 독서, 토론 프로그램”과 “고른 발달을 위한 다양한 영역의 통합”에 4.5로 높은 지지를 나타냈다.

< 표 6 > 유아 영재 교육의 교육 영역

설 문 내 용	동의를 정도 적극 반대(1) - 매우 동의(6)	
	평 균	표준편차
유 아		
예체능 영역	5.17	0.41
수학, 수리 프로그램	4.67	0.52
과학, 탐구 프로그램	4.67	0.52
언어, 독서, 토론 프로그램	4.50	0.55
창의성, 사고력	5.00	0.63
사회성 기술 및 리더십	4.33	0.52
고른 발달을 위한 다양한 영역의 통합	4.50	0.55
초등 저학년		
예체능 영역	5.17	0.41
수학, 수리 프로그램	5.00	0.63
과학, 탐구 프로그램	5.00	0.63
언어, 독서, 토론 프로그램	5.00	0.63
창의성, 사고력	5.00	0.63
사회성 기술 및 리더십	4.33	0.52
고른 발달을 위한 다양한 영역의 통합	4.50	0.84

한편 초등 저학년 연령에 대해서도 “예체능 영역”이 5.17로 역시 가장 높은 동의를 얻었고 “수학, 수리 프로그램”, “과학, 탐구 프로그램”, “언어, 독서, 토론 프로그램”, “창의성, 사고력” 등이 각각 5.0으로 높은 지지를 보였다.

‘유아 영재교육의 교육 영역’ 부분에서도 역시 유아기와 초등 저학년 연령에 그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유아 영재교육의 영역

에 있어 예체능, 수학, 과학, 언어 등을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꼽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초등 저학년에서는 초등 고학년이나 중등학생들과는 달리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프로그램 제공과 자극이 요구되므로 다양한 부처간의 협의와 협력에 의한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7) 유아 영재 교육 운영방식

< 표 7 > 유아 영재 교육 운영방식

설 문 내 용	동의를 정도 적극 반대(1) - 매우 동의(6)	
	평 균	표준편차
유 아		
유아교육과가 있는 대학에 유아 영재교육원 개설	4.33	1.03
현행 대학 부설 영재 교육원 모두를 유아영재로 확장 운영	3.00	0.63
현행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 중 유아 영재교육원 공모, 지정	4.17	0.75
권역별로 유아 영재교육원을 별도로 공모, 지정	4.83	0.98
일반 유치원 및 대학부설 유치원 학급 내 에서 통합적으로 유아 영재교육 실시	3.33	0.52
일반 유치원 및 대학부설 유치원에 유아 영재 특별반 설치 및 운영	3.83	0.75
병설유치원을 중심으로 주중 혹은 주말 영재학급 운영	3.66	0.82
사설 영재교육기관 중 인증 받은 기관을 포함해서 실시	3.66	0.82
뛰어난 영재만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실시	3.66	1.21
1-2개의 유아 영재교육기관 지정 및 시범 운영	4.16	0.98
초등 저학년		
교육대학에 영재교육원 개설	4.67	0.52
지역 교육청 및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 확대 운영	4.33	0.82
1-2개의 유아 영재교육기관 지정 및 시범 운영	4.17	0.98
정규 교육과정에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창의력, 사고력 중심의 영재교육 실시	4.17	0.98
일반 학교에서 Pull-Out, Weekend Program 등으로 영재 학급이나 프로그램 운영	4.67	0.82
일반학교에서 특기적성 활동으로 영재프로그램 운영	4.00	1.09
권역별로 유아 영재교육원을 별도로 공모, 지정	5.00	0
사설 영재교육기관 중 인증 받은 기관을 포함해서 실시	4.17	1.47
뛰어난 영재만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실시	4.17	1.17

‘유아 영재교육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유아 영재들의 경우 “권역별로 유아 영재교육원을 별도로 공모, 지정”해 운영하는 방식에 4.83으로 가장 높은 동의를 보였다. 이밖에 “유아교육과가 있는 대학에 유아 영재교육원 개설”에 4.33, “현행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중 유아 영재교육원을 공모,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식에 4.17, “1-2개 유아 영재교육기관을 지정 및 시범 운영”하는 안에 4.16 등의 비교적 높은 동의를 나타냈다.

한편 초등 저학년 영재들의 경우 “권역별로 유아 영재교육원을 별도로 공모, 지정해 운영한다”에 5.0의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고 다음으로 “교육 대학에 영재 교육원 개설” 및 “일반 학교에서 Pull-Out, Weekend Program 등으로 영재 학급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에 각각 4.67로 역시 높은 동의를 보였다.

이상으로 볼 때 전문가들은 유아 영재교육의 경우 “권역별 유아 영재교육원을 별도로 공모, 지정하는 방식”을 가장 이상적으로 꼽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전문가별로 의견에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초등 4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영재 교육원의 시스템이 유아 및 초등저학년 영재아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결국 구체적 시행을 위해 다양한 대안이 제시될 수는 있으나 유아 영재들의 경우 연령적 특성을 감안한 운영 방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앞서 제시된 것처럼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1-2곳을 지정, 시범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8) 유아 영재교육이 실시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 표 8 > 유아 영재교육이 실시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설 문 내 용	동의를 정도 적극 반대(1) - 매우 동의(6)	
	평균	표준편차
사교육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	4.67	0.82
과도한 교육으로 인한 정신적·심리적 문제를 갖는 어린이 수의 증가	3.50	1.38
영재를 지도할 전문 인력 양성의 어려움	5.17	0.75
과열 양상	4.67	1.03
영재 관별의 어려움	4.83	0.98
학부모 교육의 어려움	4.50	1.05
공교육과의 위계 및 연계	4.50	1.05
영재교육 시스템간의 연계	4.33	1.03
지나친 부모의 기대와 간섭	4.83	1.17
유아 교육계의 반발	4.83	1.17
사회 전반에 걸친 부정적 시각 및 인식	4.50	0.84
교육과정과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5.17	0.75
검증되지 못한 사교육 기관이나 프로그램의 난립	5.33	0.82
적합하지 않은 영재교육으로 인한 부작용	4.50	0.84
경직된 교육제도	5.17	0.75
교육기관 내에서의 위화감 유발	4.33	0.82
재정 확보 문제	5.33	0.52

‘유아 영재 교육이 실시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조사 결과 “검증되지 못한 사교육 기관이나 프로그램의 난립”과 “재정 확보 문제” 등이 평균 5.33으로 가장 높은 우려 사항으로 도출 되었다(표 8참조). 그 외에도 “영재를 지도할 전문 인력 양성의 어려움”, “교육 과정과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경직된 교육 제도” 등이 각각 5.17로 전문가들이 예견하는 유아 영재교육 시행에 있어 커다란 문제점들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아 영재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예견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9) 유아 영재교육이 실시될 경우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표 9 > 유아 영재교육이 실시될 경우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설 문 내 용	동의의 정도 적극 반대(1) - 매우 동의(6)	
	평균	표준편차
유아 영재교육의 영역과 범위에 대한 논의가 선행 되어야 한다.	5.17	1.17
특출한 능력을 지닌 소수의 영재만을 대상으로 한다.	3.00	0.89
교육 대상 아동의 범위를 넓게 하여 영재교육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	4.67	0.52
사회의 이해 및 협조가 필요하다.	4.50	0.84
유아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성격이 정립되어야 한다.	5.00	0.63
양질의 교육과정과 풍부한 자원이 갖춰져야 한다.	5.33	0.82
유아 영재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이 선정되어야 한다.	4.83	0.75
판별 방법 및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5.00	0.75
영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5.33	0.52
시범 운영을 통한 사례 연구 및 분석이 필요하다.	5.17	0.75
영재교육 담당 교사 양성 시스템을 고려해야 한다.	5.17	0.75
유아 영재교육을 위한 교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4.50	1.05
개별 영재에 대한 세심한 처치가 필요하다.	5.17	0.41
공동체 의식과 사회, 정서적인 발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4.83	0.41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5.00	0.63
아동과 영재교육에 전문적 지식과 자격을 갖춘 교사가 교육해야 한다.	5.50	0.84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5.33	0.52
상급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5.33	0.82

‘유아 영재교육이 실시될 경우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문적 지식과 자격을 갖춘 교사가 영재교육을 담당해야 한다”에 평균 5.5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어린 연령의 영재들이니 만큼 더욱 더 전문적 지식과 자격을 갖춘 교원의 확보가 중요한 관건임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양질의 교육 과정과 풍부한 교육자원”, “영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상급 프로그램과의 연계성” 등에 5.33으로 높은 동의를 보였다. 유아들의 경우 부모가 미치는 영향이 고학년에 비해 현저하므로 부모 교육을 병행한 영재 교육 시스템의 운영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국내외 유아영재교육 연구의 흐름과도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e.g., Smutny, 2003).

이밖에도 “유아 영재교육의 영역과 범위에 대한 논의”, “시범 운영을 통한 사례 연구 및 분석”, “영재교육 담당 교사 양성 시스템”, “개별 영재에 대한 세심한 처치의 필요” 등의 항목도 5.17로 비교적 높은 동의를 나타내고 있다. 유아 영재교육이 실시될 경우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유아영재교육의 실시에 앞서 충분히 사전 준비되고 또 수렴 적용될 수 있다면 유아 및 초등 저학년을 위한 영재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경우에 발생할 혼란과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0) 유아 영재 교육의 시행 및 운영과 관련한 기타 의견 및 논의사항

< 표 10 > 유아 영재 교육의 시행 및 운영과 관련한 기타 의견 및 논의사항

설 문 내 용	동의를 정도 적극 반대(1) - 매우 동의(6)	
	평균	표준편차
영재 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5.17	0.75
유아 영재교육의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	5.00	0.89
유아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교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5.33	0.82
유아 영재교육을 반대하는 유아 교육계의 인식 전환 및 이해가 필요하다.	5.33	0.82
영재교육 프로그램, 교사 수준 등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5.00	0.63
영재교육 기관으로서 기존의 유아 영재교육기관을 실사하여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4.67	1.03
교육기관들의 질을 관리하고 제고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5.17	0.41
시범 운영 후 시행 및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33	0.82
초기에는 모델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00	0.89
다양한 영역의 영재를 발굴하고 교육해야 한다.	5.17	0.75
영재의 심리 사회적 적응 문제도 다루어 져야 한다.	5.33	0.52
영재교육에 대한 홍보와 부모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5.00	0

‘유아 영재교육의 시행 및 운영과 관련한 기타 의견 및 논의 사항’을 조사한 결과 전문가들은 “유아 영재교육 담당 교사 교육에 대한 연구”와 “유아 영재교육을 반대하는 유아 교육계의 인식 전환 및 이해”, “영재의 심리 사회적 적응 문제” 등에 5.33으로 가장 높은 동의를 표했다. 이는 유아기 연령이 생애 초기의 발달 연령이니 만큼 유아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유아기 영재성을 총체적으로 개발 시켜줄 수 있는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관건임을 인정한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아기 연령 아동들의 전인적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유아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유아교육계의 입장이 적지 않은 논란으로 예견되므로 인식 전환은 물론 바른 이해와 홍보가 필요하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도 “유아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 기관들의 질 관리”, “다양한 영역의 영재 발굴 및 교육”에 5.17로 비교적 높은 지지를 나타냈다.

이상으로 유아 영재교육 실시와 관련한 중요한 제반 사항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고 그들의 동의 수준을 조사했다. 각 전문가별 세부 항목에 대한 동의의 정도는 나름대로 차이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대부분이 유아 영재교육의 당위성과 구체적 필요를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유아 영재교육 실시 시 구체적인 관별, 교육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도출, 수렴하였으며, 이와 함께 유아 영재교육 실시 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예견하였다. 연구를 통해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유아 영재교육의 시행에 관한 필연성은 이제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준비와 유아 영재교육 시행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와 부정적 양상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사료된다.

4. 결 론

어린 아동일수록 교육적 효과가 큰 반면 교육의 부재로 인한 폐해도 크다. 영재성이 나타나는 시기가 개인에 따라 다 다른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야 영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영재교육의 본래 취지와는 사뭇 다르다. 검증되지 않은 사실 영재교육기관의 난무와 이로 인한 부작용 및 영재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안타깝지만, 유아기 아동의 영재성을 발견한 경우에도 그 영재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제도의 부재로 인해 적절하게 지원을 못하거나 부모가 직접 생업을 접고 아동의 교육에 매달리게 되는 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유아 영재교육의 시작은 빠르면 빠를수록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는 적절한 프로그램의 준비를 전제로 했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유아나 저학년인 경우 영재성을 가장 먼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부모나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 교사이지만 발현된 재능이 과연 영재성인지 단순히

발달이 빠른 것인지 파악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항시 영재성을 판별해줄 수 있는 센터설립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 유아기의 경우 선별된 영재가 극소수라는 것을 방패삼아 아무런 제도적 지원 없이 뛰어난 유아들이 적절한 교육 없이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유아 영재교육의 본격적 실시에 앞서 매우 뛰어난 것으로 확인된 유아들을 대상으로는 전문가 솔루션 팀(유아교육, 영재교육, 분야별 전문가 등)을 구성하여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유아 영재교육원의 설치는 위에서 제기된 요구를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는 통로이며 잠재된 유아 영재의 발굴과 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전문가들은 유아 영재교육원의 설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후 권역별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여러 곳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것보다 국가차원에서 시범적으로 1-2곳을 시범운영한 뒤 유아영재의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 등에 노하우가 쌓이고 프로그램 등도 어느 정도 개발된 후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끝으로 이 연구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유아 영재교육 실시를 위한 유아 영재교육의 타당성, 판별, 교육, 운영의 측면에서 거시적인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유아 영재교육의 현실화를 위해 보다 실제적이고 미시적인 안들이 후속연구를 통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연령적 특수성과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유아 영재교육의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시각이 다양할 수 있으며 발생가능한 부정적 문제들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보다 많은 전문가들과 학부모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의 관심 가운데 유아 영재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바람직한 유아 영재교육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박성익, 조석희, 김홍원, 이지현, 윤여홍, 진석연, 한기순 (2003). 영재교육학원론. 교육과학사.
- 이영석(2004) 유아영재의 진단과 교육프로그램 운영방법,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 (1), 81-113.
- 최순실, 김복순, 한석실(1995). 자녀의 영재성과 영재교육에 관한 부모의 인식 및 실태조사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 209-240.
- Diamond, M., & Hopson, J. C. (1998). Magic trees of the mind. New York: Dutton.
- Gogul, E., McCamsey, J., & Hewett, G. (1985). What parents are saying. GCT,

7-9.

Smutny, J. (2003). *The young gifted child: potential and promise, an anthology*.
Cresskill, NJ: Hampton Press.